# ‘姜·李’ 뭉치면 김한길 넘어설까

## 민주 당대표 경선 ‘1대 1’ 대결 구도 관심

## 비주류 “정치적 담합…단일화 효과 제한적”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후보인 강기정, 이용섭 후보가 25일 단일화 방식에 합의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바람을 일으킬 것인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단일화로 인해 ‘1대 1’ 구도가 된다면 전체적인 판세에는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길 대세론에 단일 후보가 상당한 추격전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역전극을 연출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 즉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두 후보는 단일화의 명분으로 ‘혁신’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두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재건하기 위해 당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며 “혁신을 통한 민주당 재건이 가능하려면 통합적 리더십을 갖춘 새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단일화 합의 배경을 밝혔다. 또 현장에서 만난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힘을 모아 당을 재건하라’는 요구를 거듭 확인했다”며 “단일후보 선출은 우열을 가리는 승패게임이 아니라 최적의 후보를 추대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특히, 두 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의 참담한 현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4·24 재보선 결과로 인해 혁신을 매개로 하는 단일화 효과는 극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단일화를 계기로 당내 범주류 세력의 재결집은 물론 중도 세력의 지지까지 이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김한길 후보 진영 등 당내 비주류 측에서는 두 후보 모두 범주류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단일화의 배경에 정치적 담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눈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한계로 인해 단일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비주류 측 모 인사는 “한 사람이 중도 성향이라면 어느정도 이해는 됐을 것”이라며 “두 후보 모두 범주류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혁신이라는 단일화 명분이 빛이 바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단일화의 시기가 늦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본선 시작부터 1대 1 구도가 형성됐다면 판세는 달랐겠지만 김한길 후보의 대세론이 자리잡은 뒤에 단일화가 이뤄짐에 따라 역전을 이루기에는 시간도 동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호남 표심을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강·이 후보 진영에서는 단일화가 이뤄지면 호남 표심의 결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들의 당권 도전이 호남 정치력의 복원을 요구하는 지역 민심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단일화 바람이 호남에서부터 시작,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용섭 후보는 이날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호남 정당은 아니지만 호남 없는 민주당도 없다”며 “단일화하면 김한길 대세론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한길 후보 진영에서는 이미 호남에서도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단일화 효과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일부가 김한길 후보 대세론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치적 성장 과정이 다른 두 후보의 지지층이 과연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것인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광주시장 도전 여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진정성’을 확보해야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강기정·이용섭 후보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단일화 시기·방식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무성·이완구 ‘여의도 입성’ 친박계 ‘질서재편’ 촉발 되나

## ‘원조친박’ 김무성 공조냐 견제냐…新친박과의 관계설정 관건

4·24 재보선에서 김무성·이완구 의원이라는 친박계의 두 ‘거물’이 여의도에 입성,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질서가 재편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내 비주류이던 시절 한때 친박 좌장으로 불렸던 김무성 의원은 5선으로 친박계 의원들이 포진한 부산·경남(PK)에서 최다선이다.

당분간은 박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낮은’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나서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전혀 없다”면서도 “박 대통령의 성공적 출범과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충남지사를 지낸 3선의 이완구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은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에 참여한 ‘원박’(원조 친박)은 아니지만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하며 지사직을 던져 박 대통령과 가까워졌다. 충청권 국무총리 후보로도 거론됐던 그가 중앙 무대로 활동범위를 넓혀가면 PK가 근거지인 김 의원과는 ‘이질적인’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친박계가 김 의원을 기점으로 분화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김 의원이 당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친위그룹 친박계와 협력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차기 당권을 노릴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김 의원이 이번 재선거 공천을 받기 전에는 PK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신경전이 감지됐다. 청와대 실세와 부산의 일부 다선 의원그룹에선 김 의원의 ‘여의도 행’을 견제하기도 했다.

또 2007년 박 대통령의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원박’이지만 현재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는 이른바 ‘짤박(잘린 친박)·’홀박‘(忽朴·홀대받는 친박)’ 등이 김 의원의 주변에 자연스럽게 몰려들지 않겠느냐는 게 중론이다. 일부에서는 당내 비주류로 있는 친이계 등 비박계가 이런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현재 당내 주류로 통하는 친박계에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김 의원이 다소 껄끄러울 수도 있다. 관리형 ‘신(新)친박’으로 불리는 현재의 황우여 대표 체제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신임 대표에 인사·예산 전권

##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강력한 쇄신드라이브 기대

오는 5월4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전과는 달리 인사와 예산 등에서 전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임 대표는 한층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강력한 쇄신 드라이브를 통해 당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전대준비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당의 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고 당 대표에게 인사와 예산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비대위와 당무위 논의를 거쳐 내달 4일 전대에서 확정된다.

개정안은 당직 인사와 예산 분야에서 최고위원회가 심의를 하되 최종 결정권은 당 대표가 갖도록 명문화했다.

지금까지는 인사와 예산을 비롯, 모든 분야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가 심의, 의결해와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돼 왔다.

전대준비위는 이와 함께, 당헌·당규에 최고위원회의를 ‘합의제’가 아닌 ‘협의제’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대통령 대선공약 각종 위원회 뜬다

## 국민대통합위·청년위·지역발전위 등 이달중 출범

박근혜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이달 내로 속속 출범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한 언론사 편집 · 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등도 조만간 구성을 완료해 세대와 지역을 넘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는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 설치되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위원은 민간위촉위원 40명과 각 부처 장관 등 당연직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인수위 시절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던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가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위원회는 청년의 창업·취업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발굴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인수위 청년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을 비롯, 젊은이들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저명인사들이 위원장 후보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전 정부에서 활동한 위원회로 존속한 경우다. 애초 국무총리 산하로 옮길 방침이었지만 검토 과정에서 대통령 산하로 정했다. 현재 위원장은 공석으로 위원장 후보로 3배수가 추천돼 막바지 인선 작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5월 내에 발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국가지도자연석회의도 머지않아 구성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체에 박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지경기자 jkpark@

# 재보선 2곳 건진 與 ‘자축’ 분위기

## 정국 주도·국정운영 추동력 확보 기대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선거인 4·24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하자 자축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선거 3곳 중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 등 2곳에서 승리했다. 또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대로 두 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으나, 두 지역 모두에서 여권 성향의 후보가 승리, 사실상 야권을 눌렀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쥐는 것은 물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추동력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선거에서 패한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선거 2곳에서 승리하고 기초단체장 선거 등에서도 선전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그러나 127석을 보유한 원내 2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은 6곳에서 후보를 내 단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게 민주당의 현주소이자, 그동안의 정치활동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는 점을 잘 새겨서 진정한 제1야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사무총장도 “무공천한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대체로 새누리당 성향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는 등 국민이 새 정부에 대해 채찍과 함께 격려를 해주신 결과로 보인다”며 “반면 민주당은 국민께 드렸던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까지 나선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햇빛 재태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정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인증서 판매가격:입찰을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자부담 550 ~680만원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cnh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 총판 TEL.1577-8905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 1F 019-624-2371

매 매
→ 대 478㎡, 건1475㎡, 2004년 신축
→ 6층건물, 엘리베이터 2대
→ 매매가 14억 5천만원
→ 분할매매 가능
목포, 2호광장 사거리 구, 맹수 한의원 건물
임 대
→ 6층건물
→ 6층 고급주택, 옥상 광고탑
→ 병/의원, 약국, 교회, 커피숍 체인점, 편의점, 식당, 학원 등
상담문의 011-611-9525 010-4667-9300

부동산경매
▶반토막 난 부동산! 지금이 찬스!
▶노후 대책은 부동산 경매로!
▶경매비법 배우면서 투자!
▶단독/공동/소액투자 가능!
▶낙찰물건 실전 사례 교육!
▶1인1물건 추천
■강의기간 : 3개월, 주1회
■강의시간 : 매주 금요일(저녁7:30~9:30) 토요일(오후5:00~7:00)
■강의장소 : 광주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강 의 료 : 개인 지도 1,100만원
엘피엘/특수물건
예약상담 H. 010-3605-5000
(주) 오 천 경 매